

# “쓰고 버린 마스크로 의자를 만듭니다”

## 우리은행 마스크 자원순환 캠페인 ‘희망 리본’



1 우리은행 마스크 자원순환 캠페인 '희망 리본(RE-BORN)'  
2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은 자원순환을 통한 자원 효율화와 순환 경제에 동참하고자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마스크 자원순환 캠페인 ‘희망 리본’(Re-born)을 5월 22일부터 진행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래 새로운 환경오염 요인으로 떠오른 마스크를 활용해 자원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스크 연간 사용량은 약 73억 장(2만9천 t)으로 추정된다. 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하면 분해하는 데만 약 450년이 걸린다.

우리은행은 마스크 필터 제조사인 제이제이글로벌과 협력해 사용 후 버려지는 페마스크를 수거하고, 마스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원단을 활용해 재생 PP(폴리프로필렌)칩으로 재생산한다. 이 재료로 의자와 같은 자원순환 용품을 제작한다.

우리은행은 임직원의 캠페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회현동 본점과 디지털타워, 우리금융상암센터, 성수동 우리W타워 내에 마스크 수거함

을 설치했다. 또 고객과 일반인도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서울시 소재 주요 사회복지관 4곳에 마스크 수거함을 6월까지 추가로 설치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번 캠페인으로 제작한 등받이 좌식의자 1천 개를 한국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전국 취약계층 1천 가구에 전달한다. 고객에게 자원 재활용과 순환 경제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수거한 페마스크와 마스크 생산 잔여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도 연다.

이원덕 은행장은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순환 경제의 핵심”이라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자원 효율화와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해 ESG 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